

## 2008년 결핵환자 현황 ②

### -신고 신환자 현황-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2008년도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를 발간하였다. 연보 내용 요약을 통해 지난 한 해 결핵현황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 환자유형별 현황

2008년 한 해 동안 신고된 환자는 총 34,157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70.3명의 신고 신환자율을 나타내었다. 환자 유형별로는 전체 신환자의 83.0%인 28,344명(인구 10만 명당 58.3명)이 폐결핵이었고 폐외결핵은 17.0%인 5,813명(인구 10만 명당 12.0명)이었다. 폐결핵환자 중 도말양성 신환자는 11,048명(인구 10만 명당 22.7명)으로 전체 신환자의 32.3%를 차지하였다.

#### 성별, 연령별 현황

성별로는 전체 신환자 중 남자가 58.2%인 19,877명(인구 10만 명당 81.4명)이었고, 여자는 41.8%인 14,280명(인구 10만 명당 59.0명)이 신고되어 남자 환자가 여자 환자보다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70대 이상 환자가 전체 신환자의 20.2%인 6,9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20대가 5,712명(16.7%)이었다. 그러나 각 연령별 인구 대비 신환자 신고율을 70세 이상이 인구 10만 명당 215.9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60대가 114.2명, 20대가 79.5명 순이었다.

0-9세 연령군의 경우 전체 신환자의 0.3%인 95명이 신고되었으며 이중 도말양성 폐결핵환자가 6명이었다. 말초림프절 결핵환자도 13명으로 0-9세 신환자의 13.7%를 차지하였다.

#### 신고기관별 현황

신환자의 신고기관별 현황을 살펴 보면, 보건소 등록환자는 7,315명으로 전체 신환자의 21.4%, 병의원 등록환자는 26,842명으로 78.6%를 차지하였다.

[ ]안은 인구 10만명당

구분	인구	폐결핵 Pulmonary TB		폐외결핵	전체	
		활동성	도말양성			
전체	48,606,787	28,344 [58.3]	11,048 [22.7]	5,813 [12.0]	34,157[70.3]	
성별	남자	24,415,883	16,923 [69.3]	6,677 [27.3]	2,954 [12.1]	19,877[81.4]
	여자	24,190,904	11,421 [47.2]	4,371 [18.1]	2,859 [11.8]	14,280[59.0]
연령	0~9세	5,092,743	44 [0.9]	6 [0.1]	51 [1.0]	95 [1.9]
	10~19세	6,642,016	1,923 [29.0]	424 [6.4]	333 [5.0]	2,256 [34.0]
	20~29세	7,181,464	4,752 [66.2]	1,516 [21.1]	960 [13.4]	5,712 [79.5]
	30~39세	8,283,010	4,149 [50.1]	1,448 [17.5]	925 [11.2]	5,074 [61.3]
	40~49세	8,360,030	4,233 [50.6]	1,739 [20.8]	916 [11.0]	5,149 [61.6]
	50~59세	6,018,796	3,757 [62.4]	1,575 [26.2]	833 [13.8]	4,590 [76.3]
	60~69세	3,829,324	3,674 [95.9]	1,510 [39.4]	701 [18.3]	4,375[114.2]
	70세 이상	3,199,404	5,812[181.7]	2,830 [88.5]	1,094 [34.2]	6,906[215.9]

### 지역별 현황

지역별 신고 신환자 분포를 살펴보면 신고 신환자수는 서울이 8,952명(26.2%)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경기 5,188명(15.2%), 부산 3,461명(10.1%)순이었으나 인구대비 신고 신환자율은 강원이 인구 10만 명당 99.2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부산 99.0명, 서울 89.2명, 대구 83.1명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실제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한 신고 신환자율은 강원이 인구 10만 명당 98.7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부산 91.5명, 충남 84.5명 순이었다. 신고지를 기준으로 한 신고 신환자율과 환자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한 신고 신환자율을 비교할 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에서는 신고지 기준 신고환자율이 높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거주 환자를 기준으로 한 신고 환자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지역별 병의원 신고기간 준수율

지역별 병의원 신고기간 준수율은 강원도가 83.6%로 제일 높았고 울산(82.2%), 충남(77.1%) 순이었으나 신고기간 준수율이 제일 낮은 곳은 대전(45.6%), 경기(49.6%), 전북(55.8%) 순이었다.

## 연도별추이

2008년 신고된 결핵환자 44,174명 중 신환자는 총 34,167명(인구 10만 명당 70.3명)으로 2007년 34,710명보다 553명이 감소하여 1.6%의 지표 감소율을 보였다.

폐결핵의 경우 23,344명으로 2007년도 신고환자수 29,705명에 비해 1,361명(지표 감소율 4.6%)이 감소한 반면 폐외결핵은 5,813명으로 2007년도 5,005명에 비해 808명이 증가하여 16.1%의 지표증가율을 나타냈다. 또한 주된 전염성환자인 도말양성 폐결핵환자는 11,048명으로 2007년도 10,927명에 비해 121명(지표증가율 1.1%) 증가하였다.

연도별 신고 신환자의 신고 추이를 보면 2005년과 2006년에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그 후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2001년 10만 명당 99.6명에서 2008년 10만 명당 79.5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나머지 연령군에서의 변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신고기관별로는 보건소에서의 도말양성 환자는 2001년 10만 명당 12.4명에서 10만 명당 5.8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종합병원에서의 도말양성 환자는 2001년 10만 명당 8.7명에서 10만 명당 12.5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병원에서의 도말양성 환자도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다.

결핵환자 진단 후 7일 이내에 신고를 한 신고기간 준수율을 보면 2004년 63.5%에서 2005년 41.9%로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증가하였다. 2007년 73.7%에 비해서는 2008년 68.5%로 감소하였다.

## 신고 외국인 환자 현황

신고된 결핵환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736명으로 전체 환자의 1.7%를 차지하였다. 신환자 중에서는 587명으로 신환자의 1.7%를 차지하였으며, 2001년 126명에 비해 461명이 증가해 약 4.7배 증가하였다. 신고된 외국인 신환자 중 폐결핵이 486명(82.8%)으로 2001년 112명에 비해 4.3배 증가하였고, 도말양성은 167명(28.4%)으로 2001년 38명에 비해 4.4배 증가하였으며, 폐외결핵은 101명(17.2%)으로 7.2배 증가하여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

※ 이 자료는 2008년 8월 발행된 질병관리본부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에서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